

# 음악에서의 포스트휴먼 담론과 음악교양교육에의 적용

신혜승

1. 서론
2. 포스트휴먼 담론의 다양한 스펙트럼
  - 1) 포스트휴먼 담론에 대한 이해
  - 2) 음악에서의 포스트휴먼 담론
  - 3) 접점: 관계적 주체성, 타자성
3. 포스트휴먼 시대, 음악교양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 1) 음악교양교육의 역사 반추
  - 2) 음악교양교육의 새로운 방향모색
4. 공감적 상상력 함양을 위한 사운드스케이프 관점 제안
  - 1) 교육방향
  - 2) 슬픔의 노래를 소재로 한 시청각적 스토리텔링
5. 결론

## 개 요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과 기술, 혹은 비물질적 주체와 물질적 세계라는 이원론적 사고방식 하에서, 음악을 주로 기술의 측면에서 파악하여 왔다. 특히 교양으로서의 음악교육에 있어서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도구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창작과 향유, 비평의 방식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원론적 사유방식의 해체가 이루어지는 포스트휴먼 시대로 접어든 만큼, 본 연구에서는 음악을 인간을 구성하는 근본 원리의 일부로 파악하여 인간과 음악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휴먼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과 형태들 속에서 접점을 찾아내어 관계적 주체성, 타자성의 맥락에서 음악교육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현시대가 요청하는 교양으로서의 음악교육의 내용을 포스트휴먼이라는 인문적·철학적 지평 위에서 규명해 내하고자 한다.

주제어: 포스트휴먼, 관계적 주체성, 타자성, 탈경계, 탈중심, 상호관계성, 공감, 교양교육, 사운드스케이프, 시청각적 스토리텔링, 상상공간

## 1. 서론

현 세계는 ‘스마트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했다.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초연결, 초지능의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현재 대학의 교양교육은 이러한 시대적 도전에 맞춰 여러 변화들이 모색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술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스마트 사회’,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는 이 용어들은 대학교육이 그 시대가 원하는 직업 인력, 기술 인력을 길러내는 쪽을 강화하도록 이끌고 있다. 기술의 시대일수록 기술과 공생하는 인간에 대한 질문과 그 기술로 만들어갈 인간의 조건에 대한 사유와 성찰이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시대적 특성에 적합한 교양교육의 대안적 교육모델을 설계함에 있어 토대로 삼을 개념으로, ‘스마트 사회’나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용어 대신 좀 더 포괄적인 논의가 가능한, 인간과 기술의 공진화 관계에 기초한 ‘포스트휴먼’이라는 개념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포스트휴먼은 자족적인 주체로서의 근대적 인간 개념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타자의 문화와의 조우, 기계와 인간의 접합, 동물과 인간의 연결을 고려하는 한층 더 열린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포스트휴먼 담론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포스트휴먼 조건들을 다각도로 성찰해 봄으로써 ‘음악교양’의 개념을 잠정적으로 규정해 보고자 한다.

교양은 예로부터 인간됨의 교육으로 언제나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변화되어 왔다. 고대의 파이데이아(paideia), 근대의 자기형성(Bildung), 현대의 자유교양(liberal arts)은 모두 당대에 요구되는 인간다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대학의 교양교육은 역사적으로 인간을 형성하는 것임과 동시에, 다른 모든 세계와의 연결 속에서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를 양성함에 그 목적을 두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고등교육으로서 대학은 기술과 시장의 관점에서 교육의 방향을 정하기보

다는, 인간 주체 형성의 관점에서 교육의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이어 포스트휴먼 사회에서의 인간다움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양교육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교양교육의 정의를 재검토하고 사회상황에 맞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교양교육으로서 커리큘럼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가운데 음악교육은 인간의 소양능력 개발을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교수되고 학습되어야 하는지 그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포스트휴먼 시대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음악교양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새로 설정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음악교육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변화의 시기일수록, 교양교육은 변화를 그저 따라가는 것을 넘어 이를 해석, 재고 및 비판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사고력 함양에 힘써야 하기 때문이다.

## 2. 포스트휴먼 담론의 다양한 스펙트럼

지금까지 세계는 인간과 기술 혹은 비물질적 주체와 물질적 세계라는 이원론적 사고방식 하에서 작동되어 왔다. 여기서 인간은 자연과 기술을 지배하고 누릴 특수한 지위를 부여받았고, 인간이 모든 지식의 중심범주에 도달하게 되면서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 나타난 물질적 풍요로움, 생활의 편리, 사회적 평등과 자유 등은 인간만이 누리는 특권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최첨단 신생기술들로 인해 인간중심적인 사고로 이해된 휴머니즘을 극복하려는 경향이 크게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범주화된 이원론의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신생기술이란 근대 과학기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기술들로, 흔히 NBIC로 통칭되는 나노기술(Nanotechnology),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인지신경과학(Cognitive Science)을 의미하는데,

좀 더 자세히 언급하면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합성생물학 등을 포함한다.)<sup>1)</sup> 신생기술들 사이에 자유로운 결합이 발생하여 성공적으로 융합하게 되면, 자연은 물론 인간의 몸과 마음까지도 변형되고 재설계되는 것이, 심지어는 창조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포스트휴먼의 접근 방식 중 하나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이러한 기술의 수렵에 의해 인간은 포스트휴먼이 되어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포스트휴먼이란 “인간의 생물학적 몸은 도태되고, 첨단 기술에 의해 완전히 성능이 증강된 인간 이후의 존재자”<sup>2)</sup>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만, 포스트휴먼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제 인간도 자연과 다름없이 과학적 탐구와 기술적 조작의 대상이 된 것이다.

## 1) 포스트휴먼 담론에 대한 이해

포스트휴먼에 관한 연구들은 포스트휴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냐에 따라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포스트휴먼 담론의 범주를 크게 두 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기술 애호주의적 혹은 기술 혐오주의적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을 둘러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인간성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먼저, 포스트휴먼을 기술 애호주의/기술 혐오주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사이보그,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 등 유전적, 약물적, 기계적 변화와 같은 과학기술적 역량의 차원과 연결된 논의들이 다양한 영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의 포스트휴머니스트들은 유전공학이나 디지털 정보 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이 단순히 인간의 지성적·육체적 능력을 보완해 주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인간 능력을 향상 혹은 파괴시

1) 강영안·이상현, “포스트휴머니즘에 관한 철학적 성찰,” 『지식의 지평』 15 (2013), 157.

2) 이종관, “포스트휴먼을 향한 인간의 미래?” *Future Horizon* 26 (2015), 4.

키고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형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sup>3)</sup> 기술에 의한 인간 변형의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이러한 연구들은 포스트휴먼의 주된 연구 성향으로, 인간을 생물학적 기술의 대상으로 놓고 논의한다. 이러한 성향의 연구자들은 신생기술들의 성공적 융합을 인간에 적용하면 질병이나 죽음과 같은 인간이 가진 본래적 한계나 성격, 의지 등 후천적으로 생겨나는 불평등이 극복될 수 있으리라 전망하기도, 또다른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포스트휴먼 담론의 또 다른 차원은 인간을 정의하고 인식하는 새로운 사고의 틀로써 접근하는 논의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90년대 말 헤일즈(Katherine Hayles)는 포스트휴먼을 전통적인 인간관의 소멸 내지는 해체 과정, 인간성의 새로운 버전이 생성되는 과정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았다.<sup>4)</sup> 인간성을 바라보는 새로운 사고의 틀로서 포스트휴먼의 조건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인간의 생활양식만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유방식과 행동방식까지도 바꾸어 놓고 있다. 이 급격한 변화는 인간과 기계와의 경계를 흐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까지도 야기하고 있다.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는 자신의 저서 『포스트휴먼』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조건이 포스트휴먼적임을 인식하고 이 조건에 적절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윤리, 새로운 인문학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sup>5)</sup> 인간의 본성 자체에 대한 새로운 반성 및 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인간과 자연, 정신과 육체, 이성과 감정, 서양과 동양 등으로 구분되어 전자가 후자에 대해 우위를 차지한다는 근대 휴머니즘 발상은 인간을

3) 이화인문과학원, 『인간과 포스트휴머니즘』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3), 5.

4) Katherine Hayles, *How We Became Posthuman: Virtual Bodies in Cybernetics, Literature, and Informa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 6; 이화인문과학원, 『인간과 포스트휴머니즘』, 273.

5) 로지 브라이도티/이경란 옮김, 『포스트휴먼』,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이해하는 올바른 개념적 틀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 인간 정체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규명하기 위해서는 근대적 휴머니즘을 넘어서는 새로운 이해의 틀로서 포스트휴머니즘이라는 새로운 관점이 요구된다. 이때 포스트휴먼은 단순히 기술과학이 인류의 미래를 유토피아, 혹은 디스토피아로 이끌 것이라는 관점에서 만이 아니라, 그동안 인간중심주의, 이성중심주의, 서양중심주의에 의해 배척되어 왔던 자연, 동물, 야수, 기계 등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비판적 견지의 포스트휴먼 시각에서 정의되어지고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전통적인 인간 개념에 따른 인간 중심 사유에서 벗어나 “혼중적이고 유동적이며 증충적인 인간 정체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규명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이해의 틀”<sup>6)</sup>로서 작용되어야 할 것이다.

## 2) 음악에서의 포스트휴먼 담론

예술에 관한 포스트휴먼 담론에서 주로 등장하는 분야는 미술, 미디어아트, 공상과학소설, 행위예술, 바이오아트, 영화, 만화, 게임 등의 분야이다. 포스트휴먼적 사유 과정을 통해 구축된 서사를 바탕으로 한 작품들의 특정한 의미들은 문자, 영상, 이미지, 퍼포먼스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기술을 인간 구성의 중요한 요소로 혹은 공진화하는 공생관계로 인식하는 다양한 포스트휴먼 양상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술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계성과 새로운 형태의 주체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유도된다. 이때 기술은 인간을 향상, 파괴, 변형시키는 매개로서 새로운 주체성을 정의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음악 분야에서는 포스트휴먼의 견지에서의 연구가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음악 분야에서의 포스트휴먼적 접근을 보여주는 연구로는 조르그너(Stefan Lorenz Sorgner)의 논문 “Music, Posthumanism and Nietzsche”

6) 이화인문과학원, 『인간과 포스트휴머니즘』, 6.

(*The Agonist*, 2012)와 그의 저서 『포스트휴머니즘과 트랜스휴머니즘: 입문서』(*Post- and Transhumanism: An Introduction*, 2014)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물들은 포스트휴먼 담론이 주장하고 있는 사안들을 오페라나 영화음악과 같은 작품 예나 새로운 악기와 연주기술의 개발에 대한 예를 통해 접근해 나가고 있다. 조르그너는 미국 작곡가 글래스(Philip Glass, 1937- )의 작품을 예로 들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글래스의 영화음악 《코이아니스카시: 균형에서 벗어난 삶》(*Koyaanisqatsi: Life out of Balance*, 1983)과 3편의 오페라 《해변의 아인슈타인》(*Einstein on the Beach*, 1976), 《사티아그라하》(*Satyagraha*, 1980), 《케플러》(*Kepler*, 2009)를 통해 포스트휴머니즘 철학의 중요한 3가지 측면을 이끌어 내고 있다. 즉 과학 기술의 문제에 대한 관심, 동양적이고 비이원론적인 사고에의 지지, 엄격하고 절대적인 범주의 거부와 인간의 존재론적 특수한 지위를 거부하는 사고방식과의 관련성 등을 읽어 내고 있다.<sup>7)</sup>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들 작품에서 음악은 시각적 이미지나 상황들을 강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즉 음악은 장면을 보며 느끼는 어떤 모호한 감정을 감각적으로 강화시켜 관객으로 하여금 영화나 오페라 속에 빠져들어 자신이 영화나 오페라에 나오는 세계의 일부라고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조르그너는 이러한 청각적 강화를 통해,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시각과 청각이라는 감각과 감각의 관계를 통해 작품이 내재하고 있는 특별한 의미에 대한 상상력이 상승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관객은 한걸음 더 나아가 중요한 철학적,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다른 작품으로, 니만(Michael Nyman, 1944- )의 오페라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The Mans who Mistook his Wife for a Hat*, 1986)와 《페이싱 고야》(*Facing Goya*, 2000)에서 포스트휴먼이 보여주는 기술애호적인 혹은 기술혐오적인 접근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중 《아내를 모자로

7) Stefan Lorenz Sorgner, "Music," *Post- and Transhumanism: An Introduction*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2014), 303.

착각한 남자》는 신경학자 올리버 색스(Loiver Sachs)가 시각인식불능증을 가진 한 환자의 사례를 책으로 엮은 것을 오페라로 각색한 것이다. 이 오페라를 통해 인간의 성격이 신경계 전달물질의 결핍이나 과잉으로 인해 파괴되거나 변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페이싱 고양이》은 2000년에 초연된 4막 구성의 오페라로, 스페인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가 죽은 이후 그의 사체가 머리가 없는 채로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작품은 유전 공학, 복제, 우생학과 나치의 인종 우월주의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니만이 참여했던 영화 《가타카》(Gattaca, 1997) 역시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는 유전공학과 우생학이 만연한 미래의 어느 한 사회에서, 우수한 유전인자를 지니고 태어난 사람만이 높은 지위와 직업에 접근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받는다든 설정에서 시작한다.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 1797-1828)의 《즉흥곡(Impromptu) D. 899, No. 3》이 연주되는 음악회 장면이 영화 중반에 등장하는데, 여기서 이 곡을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는 여섯 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다. 연주가 끝난 후 인사를 하며 자신의 육손 장갑을 청중들에게 날리는 장면에서는 유전적으로 유리함이 과시되며 추앙된다. 이 음악회에서 원곡과는 달리 다섯 손가락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즉흥적으로 추가되는 선율이 나오는 점을 파악하는 것도 영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영화 곳곳에 등장하는 니만의 음악은 플롯과 관련된 감정적 도전을 강화함으로써 영화의 플롯을 이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위의 예들에서처럼, 음악에서의 포스트휴먼적 접근을 보여주는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음악이 인간의 특수한 지위에 의혹을 표현하기에 철학적으로, 즉 감각적으로 가장 좋은 접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바로 이점이, 즉 포스트휴먼 담론에서의 음악연구는 오페라나 영화에서 포스트휴먼적 서사를 감각적으로 강화시켜 준다는 차원만이 언급되고 있는 점은 아쉽다. 그러나 음악에서의 포스트휴먼적 접근을 보여

주는 연구는 오페라나 영화음악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유튜브 같은 온라인 음악실천공간에서의 음악을 생산하며 소비하는 프로슈머로서의 인간에 대한 연구, 온라인 플랫폼, 프로그램, 악기, 음악 등과 같은 각종 비인간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고유한 행위능력을 분석함을 통해 사회문화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연구 등의 방향으로 조금씩 확장되어 가고 있다.

### 3) 접점: 관계적 주체성, 타자성

포스트휴먼에 대한 기술 애호주의/기술 혐오주의 차원에서의 논의들이나 작품들, 그리고 인간을 정의하고 인식하는 새로운 사고의 틀로써 접근하는 논의들과 작품들이 학자마다, 예술가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의 접점은 탈경계, 탈중심, 상호연결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로지 브라이도티의 인간, 자연, 기계의 횡단적이고 관계적인 유목적 배치를 강조한 포스트휴먼 주체성,<sup>8)</sup> 다나 해러웨이의 인간과 기계, 인간과 동물의 동반종 의식,<sup>9)</sup> 캐리 울프와 캐런 바라드의 비인간(동물, 환경, 대상)에 대한 중 초월적인 공감 등이 이러한 사유의 방향을 보여준다.<sup>10)</sup> 따라서 포스트휴먼 담론이 여전히 경쟁적이고 다양하게 여러 정의들과 형태들로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이들이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아이디어는 첨단기술을 토대로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해체하고, 양자의 상호 얽힘과 분리불가능성을 강조하며 인간과 비인간의 하이브리드로서의 존재를 새로운 실재로서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sup>11)</sup>

8) 로지 브라이도티/이경란 옮김, 『포스트휴먼』,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9) Donna Haraway, *The Companion Species Manifesto: Dogs, People, and Significant Otherness*, Chicago: Prickly Paradigm Press, 2003.

10) F. Chiew, "Posthuman Ethics with Cary Wolfe and Karen Barad: Animal Compassion as Trans-Species Entanglement," *Theory, Culture & Society* 31/4 (2014), 51-69.

11) 김재희, "포스트휴먼 시대, 인간-비인간 네트워크 철학: 시몽동과 라투르," 『과학 생태신학연구소 정기학술심포지움 발표자료집: 정보와 생명, 그리고 포스트휴먼』

이제, 인간 주체의 중심범주에서 벗어나 있던 타자에 대한 전면적인 재성찰과 이 타자들과 공생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적 주체성이 촉구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포스트휴먼 주체 위치에 오른다는 것은 우리의 일부분인 타자성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개별적 정체성과 집단적 정체성 사이의 빗장을 푸는 일이며 주체와 객체, 자아와 타자, 우리와 그들을 구분해 왔던 관계들을 변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sup>12)</sup>

포스트휴먼 시대에 요청되는 이러한 관계적 주체성, 타자성이 대학의 교육 안에서 어떻게 수용되어 교수하고 학습되어야 하는지 이어지는 3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대학의 교양교육은 예로부터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인간형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의 방향을 설정해 왔다. 따라서 포스트휴먼이라는 새로운 사회와 문화적 환경 하에서 교육에서의 방향과 목표도 재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 3. 포스트휴먼 시대, 음악교양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앞서 살펴본 것처럼, 포스트휴먼 사회에서는 기존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공간 속에서 또 다른 차원의 인간과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포스트휴먼 사회로 접어들면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조건들, 공감의 내용들, 그 의미들은 상당히 많이 변화되었다. 이제까지 음악은 공감적 상상력을 배양하는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그 동안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인간중심적, 주체중심적 공감이라는 불균형적 공감들은 반성되어야 한다. 즉 음악을 통한 공감적 상상력 개발에 있어서 지리, 계급, 인종, 성의 구분을 넘어서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시대

---

(2016), 16.

12) R. L. 러츠키/김상민 외 옮김. 『하이테크네: 포스트휴먼 시대의 예술, 디자인, 테크놀로지』 (서울: 시공사, 2004), 34.

새로운 공감을 위한 음악교육은 새로운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고민도 포함해야 한다. 음악교육에서의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기 위해, 역설적으로 음악교양교육의 역사를 먼저 반추해 보고, 역사적 흐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포스트휴먼 조건을 반영한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교양으로서의 음악교육의 방향을 새로이 모색해 보고자 한다.

### 1) 음악교양교육의 역사 반추

음악은 인간의 감정과 사상, 신앙과 자유의지, 수적 비율, 규칙과 일탈, 아름다움과 추함 등을 음으로 계승해 온 지혜의 집합체이자 하나의 교양체계라고 할 수 있다.<sup>13)</sup> 시대에 따라 표현방법은 달랐지만, 음악작품 한곡 한곡은 시대상황을 끊임없이 성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완성된 것으로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일찍이 보에티우스(Anicius Manlius Severinus Boethius, c. 480-524)는 자유 시민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교육으로 수학적 원리와 연관된 4개의 과목(quadrivium), 즉 산술, 기하학, 천문학, 음악을 자유학예의 주요 과목으로 지정했다. 교양교육의 역사 초기부터 음악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의 음악은 노래나 악기 연주 등의 실기 뿐 아니라, 소리의 비율이나 음질서의 원리 등을 탐구하는 음악 이론을 통해 만물의 진리와 법칙을 읽어내는 교양 학문이었다. 보에티우스는 『음악의 원리』(*De Institutione Musica*)에서 이러한 음악을 우주의 음악(Musica Mundana), 인간의 음악(Musica Humana), 도구의 음악(Musica Instrumentalis)으로 구분하여 논하였는데, 이러한 사상은 오랜 동안 교양으로서의 음악교육에 있어서 밑바탕이 되어 왔다.

이후, 리버럴 아트(liberal arts)의 근대화와 함께 독일에서는 자기형성이

13) 스가노 에리코/박승희 옮김, 『하버드는 음악으로 인재를 키운다: 음악으로 교양을 배우는 하버드식 교육』 (서울: 양문, 2016), 5.

나 교양교육을 가리키는 용어로 빌둥(Bildung)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 단어는 문화, 경제, 정치, 예술, 음악 등 모든 분야의 지식을 얻어 전인격적인 교양인이 되는 것을 의미했다. 빌둥 개념에서 특히 예술적 감수성의 개발은 지식의 한 분야로서만이 아니라 이전과 다른 새로운 자신을 생성해 가는 힘을 습득케 하는 실천학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이러한 개념으로 인해 18세기 독일의 대학에서는 음악학과가 창설되는 토양이 만들어지게 되고 음악은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서 다시 한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sup>14)</sup> 19세기 중반 미국에서는 음악의 대중화와 사회의 근대화에 따른 여러 현상들을 교양교육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커리큘럼의 개혁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때 하버드를 비롯한 미국의 명문 대학들에 인문학의 한 분과로 음악학과가 신설되었고, 음악교양교육이 확대되었다.

요약하면, 중세 이후 대학의 역사와 함께한 대학교육의 중심에는 교양교육이 있어왔고, 그 중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 바로 음악이었다. 음악에 내재해 있는 수학적 질서 원리는 물론, 그러한 질서 원리가 소리로 표출될 때 일어나는 감응들은 또다른 방식의 감정표현과 소통이기도 했으며, 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의 함양은 물론 다양한 가치관에 대한 이해력과 창조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었다. 더욱이 자유 시민으로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인 음악비평을 통해 인간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수행해 내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이후 현대사의 근대화 물결 속에서 교양이라는 말에 새로운 어감이 붙으면서 자연스럽게 교양으로서의 음악이라는 이미지는 사고력과 비판 정신, 심미적 해석능력의 함양이라는 학문적 의미보다는, 중산층의 삶을 고상하고 세련되게 만드는 일상의 도구로서의 의미가 더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교양음악과목이 ‘부차적’ 과목이라는 인식으로

14) 스가노 에리코/박승희 옮김, 『하버드는 음악으로 인재를 키운다: 음악으로 교양을 배우는 하버드식 교육』, 209.

통용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전문교육과 직업교육에의 몰두로 인해 음악교양교육의 의미와 역할은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축소되어 왔다. 이 때문에 정서적 체험교육을 주요 영역으로 삼은 소양교육으로서의 음악 교양과목들은 개설과목 수나 내용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악교양과목의 현황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음악이론, 음악 감상법, 음악을 통한 역사교육, 음악을 통한 세계문화 학습, 음악경영 등 어떤 관점에서 무엇을 배우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음악교양수업은 대체로 서양의 예술음악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 시대별로 음악을 선별하여 소개하는 차원에 주로 머무르고 있다. 이는 서구 중심이라는 근대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문제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음악에는 자연과 인간의 모든 지혜와 사고, 감정, 체험의 역사가 결정체로 깃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음악은 다른 예술분야와 수많은 소재들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목 개발의 보다 더 다양하고 역동적인 접근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아직 새로운 인간의 형태와 대안적 삶의 양식에 관한 논의에 바탕을 둔, 즉 포스트휴먼 관점에서의 음악교육에 대한 접근은 찾아보기 어렵다. 아래의 타고르의 표현처럼 교양교육, 특히 음악을 통한 정서적 감응능력의 개발은 인간을 구성하는 근본원리의 일부로서 강조되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우리는 어쩌면 지식을 통해 힘 있는 이가 될지도 모르지만, 공감을 통해 온전함을 얻는다. ... 그러나 우리는 공감 교육이 그저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무시될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억압되고 있음을 본다.

- 타고르, 『나의 학교』, 1916<sup>15)</sup>

15) 마사 누스바움/우석영 옮김, 『학교는 시장이 아니다』 (과주: 궁리출판, 2011), 161에서 재인용.

## 2) 음악교양교육의 새로운 방향모색

“교양기초교육이란…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기여하는 교육으로… 전문성을 넘어서서 모든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보편적 교육이다. […] 비판적·창의적 사고와 원활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체의 문화적 삶을 자율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이다”<sup>16)</sup>

위의 교양교육의 목표를 함양하기 위해, 현재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는 그 하위 영역을 기초교육, 교양교육, 소양교육으로 구분해 놓고 있다. 기초교육에서는 의사소통능력 함양을 위한 말하기와 글쓰기 교육이, 교양교육에서는 지적능력 함양을 위한 고전강독이, 소양교육에서는 심미적 해석능력의 개발을 위한 정서적 체험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음악은 소양교육의 일환으로 포괄적 의미에서의 ‘인성’을 함양하는 데 그 주요 목표를 두어 왔다. 그러나 포스트휴먼이라는 변화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고립적인 자율성에서 연결성으로 이끌, 즉 인간, 자연, 사물간의 연결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타자와의 연결과 협력을 도와줄 새로운 음악교육 모델이 필요하다. 음악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역사상 중세시대부터 자유학예의 한 영역으로서 노래나 연주, 감상 행위를 통한 ‘정서적 감응’으로서 뿐 아니라 소리의 비율이나 음질서의 원리 등을 탐구하는 이론을 통해 만물의 진리와 법칙을 읽어내는 사유의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음악은 “감각 내용의 논리화와 더불어 사유 내용의 감각화라는 사유와 감각의 호환성”<sup>17)</sup>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로, 포스트휴먼이라는 새로운 사회와 문화적 환경 하에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자신을 형성해 가는 힘을 습득케 하는 실천학으로서 교육되고 활용될 수 있을 것

16) 한국교양기초교육원,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모델,” (2016), 1.

17) 한국교양기초교육원,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모델,” 5.

이다.

이를 위해서는 음악이 그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새로운 사회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독해되고 향유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 특히 서양의 예술음악사에 등장하는 작품들은 시공을 초월하여 영속적인 가치를 지닌 정전으로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가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 정신과, 지역과, 문화에 따라서 다른 차원에서 향유될 수 있음을 다시한번 직시해야 한다. 그리하여 음악을 감상하고 즐기는 방식에 있어서 한 방향으로 치우친 특정한 법칙이 아닌, 관계적 주체성을 바탕으로 탈중심적이고, 탈경계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고의 유연성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 역동적이고 초극적인 음악문화의 향유를 가능케 할 음악교양교육을 통해 인간, 자연, 기술의 연결망 안에서 인간의 새로운 위상, 책임, 그리고 그 가치가 새롭게 규명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휴먼 조건을 고려한 새로운 음악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이유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는 사건이나 정서에 초점을 맞춰 소재를 정하고, 여기에 새로운 서사를 구축함을 통해 ‘초월적 공감에 가능한 음악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제, 교양으로서의 음악교육은 역사상 음악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사에 미치는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다시 재정립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자신과 타자를 연결시킬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불어 포스트휴먼 사회에서의 교양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교양교육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교육모델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이렇게 포스트휴먼 음악교육을 시행함으로써 타자를 이해하는 다양한 내면의 시선들을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타자에 대한 깊은 공감 능력을 발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4. 공감적 상상력 함양을 위한 사운드스케이프 관점 제안

##### 1) 교육방향

포스트휴먼 음악교육의 한 예로써 ‘공감적 상상력 함양을 위한 사운드스케이프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음악교양 수업은 ‘음악에 내포되어 있는 서사적 상상력 개발을 통한 공감 능력의 함양’이라는 목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교육방향으로 삼고자 한다.

첫째 타인의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활성화하는 교육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음악이라는 관점을 통해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세계 형성 과정을 조망케 한다. 또한 음악, 영화, 회화, 조각, 문학, 정원 등 모든 예술 작품을 횡단적으로 조망케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 음악에서 소음을 다루는 방식을 통해 미지의 소리와 조우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음악이 사고와 감정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음악에서 어떤 스토리를 찾아 낼 수 있는지를 배우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상대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둘째, 음악을 통한 공감적 상상공간을 체득케 한다. 작곡가의 대담한 발상과 섬세한 표현력을 배우면서, 기존 개념을 타파하고 상상적 공간에서 과거와 미래를, 이 지역과 저 지역을 넘나들며 사유하는 방식을 체득케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간은 왜 그렇게 생각하고 표현했을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를 생각하며 타인의 삶에 접근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 2) 슬픔의 노래를 소재로 한 시청각적 스토리텔링

포스트휴먼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문화적 조건 하에서 음악교양교육 모델을 개발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감성의 다양한 차원을 희로애락(喜怒哀哀

樂)으로 유형화하여 접근하고자 하는데, 이 가운데 ‘슬픔’의 노래를 소재로 한 시청각적 스토리텔링을 통해 포스트휴먼 시대 음악교양교육의 한 사례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어린 시절 놀이가 벌어지는 공간을 통해 타인의 경험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상상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왔다면, 대학교육에서는 예술, 특히 음악적 상상공간을 통해 이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sup>18)</sup> 인간의 삶에서의 음악은 무엇보다도 깊은 공감 능력을 배양하고 확대해야 하는 소임을 가지고 있다. 어린 시절의 놀이를 대신하여 학교생활 이후의 삶에 대해 음악이 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기여는 인성의 감정적, 상상적 원천의 강화라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 기존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시공간 세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육체성과 새로운 정체성에 관해 생각하게 만드는 사운드스케이프(소리환경)를 마련하고자 한다.<sup>19)</sup> 이미 음악이라는 분야에는 다른 학문과의 융·복합 성격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을 더욱 부각시켜 음악교육이 포스트휴먼 교양교육에서 가지는 의미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먼저 이 주제의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슬픔이라는 정서를 표현하는 서구의 방식과 그 예들의 소개이다. 즉 바로크 시대의 감정이론, 음악과 수사학의 연관성 등을 시대배경과 음악적 상황, 작품 예를 통해 설명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제 강점기에 등장한 근대가곡과 동요에 내재해 있는 슬픔의 서사에 관점의 변화를 시도하여 슬픔의 노래를 통한 새로운 서사를 구축하고 이를 현재의 노래들과 연결시켜 그 의미를 재생시켜 보도록 한다. 슬픔의 노래를 매개로 서양과 동양, 과거와 현재라는 공간과 시간을 넘나들며 인간의 감성을 다차원적으로 경험케 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같은 정서를 표현하는 다른 장르의 곡들, 그리고 편곡된 버전 등

18) 마사 누스바움/우석영 옮김, 『학교는 시장이 아니다』, 168-169.

19) 이수진, “영화의 접속 기표와 포스트-휴머니즘 재현: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관한 내포 연구,” 『기호학 연구』 32 (2012), 213.

다양한 장르와의 비교를 통해 슬픔을 표현하는 시대마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해 보게 한다. 즉 시대를 달리한 같은 주제의 작품들을 연결시켜 시공간을 넘나들며 정서의 교류, 표현방식의 변화 등을 경험케 한다. 이를 통해 슬픔이라는 정서의 시대적 반응들을 살핀다. 물론 이들 과정에서 음악에 대한 기초적인 선율, 화성, 리듬 등에 대한 이론도 곡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문학, 미술, 건축, 정원, 역사, 춤, 영화 등과 연관시켜 음악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예술을 위한 예술’로서 보다는,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가 음악이 어떠한 사회적 콘텍스트에서 나온 것인지를 살피고, 이것이 현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위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 그동안 보이지 않고 말해지지 못한 의미들이 새롭게 ‘들리게’ 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세월호 문학과 노래들을 통해 슬픔을 나누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슬픔이 가지고 있는 역설의 힘을 끌어낸다. 인간이 자아의 고립상태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회 연대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은 타인의 슬픔의 인식하고, 공감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이 수업을 통해 전한다.

지금까지 인간이 소통해야 할 주요 훈련 방식이 말하기와 글쓰기였다면, 포스트휴먼 시대에는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감성과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시청각적 스토리텔링의 방식이 가능하고, 따라서 시청각적 스토리텔링을 구현할 콘텐츠 창작을 교육방식의 하나로 추구해 보고자 한다. 즉 수업에 사용될 자료와 사건들을 디지털 콘텐츠로 구축하여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할 수 있다. 디지털 상에서 구축된 교육콘텐츠는 공간의 자유로움이 있고 매체간의 전이가 용이함으로 교육효과와 그 파급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포스트휴먼 음악교양교육이 다양한 주제로 새롭게 개발된다면, 단순한 기량교육의 차원에서 벗어나 타자를 이해하는 관점, 포스트휴먼적인 마인드를 갖는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삶의

양식에서 보다 깊은 공감능력과 정서적 감응능력을 발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 5. 결론

지금까지는 인간과 기술, 혹은 비물질적 주체와 물질적 세계라는 이원론적 사고방식 하에서, 음악을 주로 기술의 측면에서 파악하여 왔다. 즉 음악의 창작과 향유, 비평에 있어서 음악이 가지고 있는 도구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을 음악교육에 적용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원론적 사고방식의 해체가 이루어지는 포스트휴먼 시대로 접어든 만큼, 음악을 인간을 구성하는 근본 원리의 일부로 파악하여 인간과 음악과의 관계를 재정립해 보았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음악에 대한 포스트휴먼적인 새로운 정의를 바탕으로 21세기 현대사회 속에서 음악의 역할과 의미를 재검토하여 음악교양교육 재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해 보았다. 다시 말해 현시대가 요청하는 교양의 내용을 포스트휴먼이라는 인문적·철학적 지평 위에서 규명해 보고자 한 것이다.

교양은 예부터 전문지식이나 직업 교육이 아닌 인간 형성의 문제였다. 그럼에도 인간다움은 각 시대의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져 왔다. 즉 고대의 인문주의, 근대의 종교개혁, 르네상스, 계몽주의, 산업혁명은 기존의 인간 개념을 비판하고 그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간의 내용을 구성해 왔다. 많은 학자들이 2010년 이후를 정보화 사회의 뒤를 이은 ‘스마트 사회’, ‘4차 산업혁명시대’로 명명하고 있는 만큼, 또한 인간과 기술의 공진화 관계에 기초한 포스트휴먼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이 시대를 ‘포스트휴먼 사회’로 진단하고 있는 만큼, 이 시대에 부합하는 교양교육으로서 새로운 수업 모델을 제시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한편으로는 과거 교양 개념을 분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교양이

놓인 문명적 조건의 분석 하에서 구체적인 교육 모델을 설계하고 실천해 나갈 의지를 다지는 일이, 그리고 교양교육의 의미와 역할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다양한 학문분야와의 소통을 통해 인간다운 세계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이 교양으로서의 음악교육의 진정한 역할과 의미가 아닐까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강영안·이상헌. “포스트휴머니즘에 관한 철학적 성찰.” 『지식의 지평』 15 (2013), 150-171.
- 구본권 외. 『포스트휴먼 시대의 휴먼』. 파주: 아카넷, 2016.
- 김경호. 『감성의 유학』.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4.
- 김재희. “포스트휴먼 시대, 인간-비인간 네트워크 철학: 시몽동과 라투르.” 『과학생태신학연구소 정기학술심포지움 발표자료집: 정보와 생명, 그리고 포스트휴먼』 (2016), 14-23.
- 누스바움, 마사/우석영 옮김. 『학교는 시장이 아니다』. 파주: 궁리, 2016.
- 러츠키, R. L./김상민 외 옮김. 『하이테크네: 포스트휴먼 시대의 예술, 디자인, 테크놀로지』. 서울: 시공사, 2004.
- 레비나스, 엠마누엘/강영안 옮김. 『시간과 타자』. 서울: 문예출판사, 2016.
- 브라이도티, 로지/이경란 옮김. 『포스트휴먼』.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 스가노 에리코/박승희 옮김. 『하버드는 음악으로 인재를 키운다』. 서울: 양문, 2016.
- 신상규. 『호모사피엔스의 미래: 포스트휴먼과 트랜스휴머니즘』. 파주: 아카넷, 2014.
- 신혜승.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음악교육콘텐츠 창작: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노래들을 통해 보는 음악문화사.” 『이화음악논집』 19/2 (2015), 93-105.
- \_\_\_\_\_. “1920년대 한국 근대가곡에 내재되어 있는 슬픔의 서사와 그 역설.” 『이화음악논집』 20/4 (2016), 1-35.
- 신혜승·정경영.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서울: 이앤비플러스, 2016.
- 이수진. “영화의 접속 기표와 포스트-휴머니즘 재현: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관한 내포 연구.” 『기호학 연구』 32 (2012), 197-219.
- 이종관. “포스트휴먼을 향한 인간의 미래?” *Future Horizon* 26 (2015), 4-9.
- 이화인문과학원. 『인간과 포스트휴머니즘』.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3.

- \_\_\_\_\_. 『포스트휴먼의 무대』. 파주: 아카넷, 2015.
- 진중권 편. 『미디어 아트: 예술의 최전선』. 서울: 휴머니스트, 2009.
- 최진석. “휴머니즘의 경계를 넘어서: 근대 인간학의 종언과 인간의 새로운 변형.” 『비교문화연구』 41 (2015), 381-413.
- 한국교양기초교육원.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모델.” 2016. [http://konige.kr/sub02\\_08.php](http://konige.kr/sub02_08.php). 검색일: 2017. 03. 07.
- 함종호. “포스트 휴먼 담론을 활용한 기초교양교육 모색.” 『한국사고와표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6. 11), 19-28.
- 헤어브레히터, 슈테판/김연순·김응준 옮김. 『포스트휴머니즘: 인간 이후의 인간에 관한 문화철학적 담론』.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2.
- 헤일즈, 캐서린/허진 옮김.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사이버네틱스와 문학, 정보 과학의 신체들』. 파주: 열린책들, 2013.
- Badmington, Neil. ed. *Readers in Cultural Criticism: Posthumanism*. New York: Palgrave, 2000.
- Hayles, Katherine. *How We Became Posthuman: Virtual Bodies in Cybernetics, Literature, and Informa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
- Ranisch, Robert and Stefan Lorenz Sorgner. eds. *Post- and Transhumanism: An Introduction*.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2014.
- Siôn, P. ap. *The Music of Michael Nyman: Texts, Contexts and Intertexts*. Aldershot: Ashgate Publishing, 2007.
- Sorgner, Stefan Lorenz. “Music, Posthumanism and Nietzsche.” *The Agonist* 5/1 (2012), 1-26.
- Welsch, W. *Art Beyond Aestheticism*. (New York: Berghahn Books, 2004), 64-68.
- Wilson, S. *Art and Science Now: How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re Becoming Key to 21st-Century Aesthetics*. London: Thames & Hudson, 2010.

## Abstract

## Posthuman Discourse on Music and Its Application to Music in Liberal Arts Education

Hye Seung Shin

Until now, under the categorical dualities like the human and technology, or immaterial soul and material body, music has been mainly understood as a technical aspect. However, as a posthuman era, in which the dualistic way of thinking is dismantled, I tried to redefine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music as a part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that make up human beings. In addition, I tried to find the direction of music education in the context of relational subjectivity and otherness by finding contacts in various definitions and forms of post human. In other words, I tried to identify the content of music education as a liberal art requested by the present age on the philosophical horizon of posthuman.

Keywords: posthuman, relational subjectivities, otherness, trans-boundary, decentralization, inter-relationship, sympathy, general education, Bildung, soundscape, audiovisual storytelling, imagination space

투고일	심사일	게재 확정일
2017년 4월 29일	2017년 5월 20일 - 6월 18일	2017년 6월 19일